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BARRY SQUIRES, FULL TILT

가제 : 배리 스콰이어스와 풀 틸트 댄스

저자 : Heather Smith

출판사: Penguin Teen

발행일: 2020년 예정

분량 : 23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자기가 가진 것은 오직 춤 하나뿐이라고 믿는 소년이 우정과 사랑, 꿈의 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따뜻한 이야기.**

배리는 아일랜드 식 스텝 댄스인 풀 틸트 (Full Tilt) 댄서가 되기를 꿈꾸는 아일랜드 소년이다. 하지만 문제는 배리에게 춤과 관련 된 재능이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리는 자신처럼 재능이 없는 댄서가 사실은 춤을 취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독자들은 이 소년을 보며 마치 영화 빌리 엘리어트 속 빌리를 만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곧 고등학생이 될 배리는 여러모로 집안의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 배리의 엄마 아빠는 배리가 여자들이나 출법한 춤에 빠져 댄서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일랜드 교회의 교리를 은근히 조롱하는 것도 모두 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빠는 그런 배리를 보고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불렀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생각과 달리 배리네 가족 중 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바로 배리였다. 어느 날 배리는 빙고 게임장에서 가족들과 빙고를 하다가 천사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배리는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은 춤꾼이라고 확신했다. 배리는 그날 같은 학교 상급생이자 풀 틸트 댄서인 빌로부터 6개월 뒤 풀 틸트 댄서를 뽑는 오디션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배리는 반년이나 오디션을 기다리기엔 너무 답답했고 비싼 의상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여기저기서 구박을 받는 배리가 가족 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막 6개월이 된 동생 고튼이었다. 배리는 어디든지 고튼을 데리고 다니며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월하는 사람인지 다정하게 알려주었고 때로는 남들에게 쉽게 터놓지 못하는 시시콜콜한 고민들까지 다 털어놓곤 했다. 집에 동생을 데리고 와서 낮잠을 재우고 나면 일을 끝낸 엄마, 아빠,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고 배리는 그제서야 풀 틸트 바 댄서의 공연을 녹화한 비디오를 켜다. 그 비디오는 사실 아빠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엄마에게 선물한 것이었지만 배리에게는 교과서나 마찬가지였다. 배리는 자기가 정말로 신이 준 재능을 타고난 천재 댄서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날 밤, 배리는

거실을 말끔히 치우고 형과 누나, 할머니, 부모님을 포함한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았다. 배리는 윗옷을 훌러덩 벗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인조털 자켓을 입었고 이마에는 신발 끈을 돌렸다. 배리가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거실 중앙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고 그를 놀려댔다. 가족 앞에 선 보인 배리의 첫 무대는 대실패였다. 화가 나 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동생 고든을 안고 침실로 돌아와 잠에 들었다.

배리네 집에서 정시에 학교에 가는 일은 매일 아침 수수께끼 문제를 푸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빠가 시계 소리에 질색을 하는 바람에 집에 시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일어나자마자 탁자에 올려둔 시계를 한 번 확인한 후 대충 감에 맞춰 출근을 했고 배리는 아빠의 촉을 믿고 아빠가 출근하자마자 등교하는 식이었다. 여느 때처럼 아빠의 시간 계산법을 믿고 집에서 나와 학교로 향하던 배리는 빙고 게임장에서 일하고 있는 스티븐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영국 태생인 그는 스스로를 1960,70년대를 주름 잡았던 락스타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마을에서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배리는 그런 스티븐에게 다짜고짜 자신의 꿈이 폴 틸트 댄서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스티븐 역시 대뜸 진정한 댄서가 되기 위해서는 락 앤 롤 스피릿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배리에게 동작 몇 개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배리는 그 터무니 없는 제안에 화가나서 자기는 락 앤 롤엔 조금도 관심이 없는데다가 자기가 추고 싶은 춤은 아일랜드 전통음악에 맞춰 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스티븐은 배리에게 그토록 기생오래비 같은 춤을 추는 댄서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었다. 배리는 그 질문에 자기도 형제들처럼 원가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형 파이어스는 어디서나 인기를 독차지하는 타고난 스포츠맨이었고 누나인 셸라그는 모범생에다 학교 회장까지 맡고 있었지만 배리에게는 아무 것도 내세울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한 대로 배리는 마음 속에 있는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싶었다. 특히 빠르게 발을 움직이며 거의 폭력적이다 싶을 정도로 바닥을 발로 강하게 내리치는 폴 틸트 춤은 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안성맞춤인 춤이었다. 배리는 하루라도 빨리 댄서가 되고 싶었지만 그가 입단하고 싶어 하는 폴 틸트 무용단인 파더 오플레어티 (Father O'Flaherty)단은 일년에 단 한번만 오디션 열었다. 스티븐은 배리에게 이번 주 목요일에 마을 요양원에서 열리는 파더 오플레어티 공연에 가서 직접 그 앞에서 춤을 선보여보라고 조언했다. 배리는 셸라그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돈이 문제였다. 누나는 무용단장의 눈에 들어 단원이 되더라도 앞으로 많은 돈이 들것이라며 배리가 춤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과연 배리는 폴 틸트 댄서가 될 수 있을까?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소년이 춤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성장하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헤더 스미스(Heather Smith)는 캐나다의 신문사인 더 글로브 메일지가 선정한 2107 최고의 100 권 중 한 작품으로 선정된 바 있는 『The Agony of Bun O'Keefe』의 저자이다.

제목 : WINTER WHITE AND WICKED

가제 : 하얀 겨울과 악당들

저자 : Shannon Dittmore

출판사: Amulet Books

발행일: 2020년 10월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판타지



*** 영화 매드맥스와 겨울 왕국을 섞어 놓은 것 같은 판타지!**

*** 화물차 운전수인 소녀가 반란군의 속임수에 넘어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다룬 이야기**

7년전, 그날도 역시 겨울은 자꾸만 어린 실비를 바깥으로 불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저주 받은 겨울의 땅에서 어린 소녀가 함부로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실비는 조용히 바깥만 바라보다 레니가 디편 선생님을 뒤통한 덕분에 그나마 지루함을 떨쳐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소녀들이 살고 있는 섬 나라, 레이스의 역사였다.

이 섬 사람들 중 유일하게 실비, 레니, 디편 선생님만 이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 먼 옛날, 지금의 웨스리드 바다가 물줄기에 불과 했던 때였다. 위대한 상상력과 빛을 가진 존재였던 창조자의 신 솔라는 어느 날 그 물줄기에 입을 맞추며 자신이 가진 품성, 온기, 창조를 향한 열망도 함께 불어넣었다. 솔라는 이렇게 탄생 한 자기 아들에게 ‘베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함께 물 아래 있는 깊은 어둠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었다. 솔라는 빛으로 인간들을 빚어냈고 이들은 가족을 이루고 왕국을 이루며 아름다운 섬들에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파라디야’라는 한 섬만 빼고 다른 섬 나라 사람들은 머지않아 솔라와 베긴드의 존재를 까맣게 잊게 되었다. 하지만 솔라는 파라디야 사람들과만큼은 여전히 긴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베긴드 역시 어머니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섬을 갖고 싶어했다. 솔라는 베긴드 역시 자기가 원하는 섬을 하나 갖도록 허락했다. 베긴드는 산과 나무가 가득한 섬을 원했고 오래 전 그가 보석들을 숨겨 놓았던 바위가 있는 땅인 훗날 ‘레이스’라고 불리게 될 ‘시브’를 선택했다. 그 섬은 울퉁불퉁하고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땅이었고 섬의 주인이라고는 오직 겨울 정령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베긴드는 섬의 바위들을 조각해 인간들을 만들어 냈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형상에 자신의 품성과 충성심을 불어넣었다. 베긴드는 시브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물이 되어 스스로를 그 땅의 가장 깊은 계곡에 부었고 그 곳이 광대한 별빛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었다. 베긴드의 물의 온기는 마침내 겨울을 산 꼭대기까지 몰아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식을 낳고 농사를 지으며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섬 너머에 있는 바다는 점점 검은 색으로 변해 가며 어두운 마법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고 시브 사람들은 그것을 ‘콜’이라고 불렀다.

산꼭대기로 쫓겨난 겨울은 난생 처음으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파괴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대신 한번도 느껴본 적 없는 외로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겨울 역시 산 밑으로 내려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베긴드가 만들어 낸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온기 때문에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겨울을 따르는 늑대들과 콜만큼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의 외로움은 마침내 분노로 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브의 해안가에 난파선에 실려 추방당한 한 여왕이 도착했다. 여왕은 한때 시브만큼 풍요로웠던 한 국가의 수장이었지만 침략자들을 피해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어린 아들만 데리고 이 섬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바로 무시무시한 콜과 바다 괴물들의 희생자였다. 총신들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진 여왕은 언젠가 다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할 야망을 품고 있었다. 시브 사람들은 그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지만 겨울은 여왕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겨울을 가만히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 시브 섬을 영원한 겨울로 만들어버렸다.

7년 후, 실비는 이제 밀수꾼이자 화물차 운전수가 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레니는 '매저러티'라고 불리는 이 섬의 실세가 된 권력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반란군들과 함께 이곳을 떠났고 홀로 남은 실비는 자신을 돌봐준 겨울 덕분에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레니와 실비는 레니의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고 둘은 자매나 마찬가지로였다. 하지만 실비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함께 반란군에 합류하자는 레니의 요청을 거절했고 홀로 레니의 할아버지가 남긴 선술집과 차고에 남아 밀수업을 하고 있었다. 눈이 녹는 시기와 함께 밀수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겨울은 실비에게 곧 악명 높은 마스 드레스덴이 그녀를 찾아올 것이니 준비하라고 속삭였다. 얼마 후 겨울의 경고대로 마스는 몸집이 거대한 힐라라는 전사와 돌 같은 피부를 가진 킨이라는 소년과 함께 그녀가 있는 선술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매저러티들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실비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며 산에 마련한 반란군 캠프에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실비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들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곧 자신을 돌봐준 겨울을 배신하는 일이자 자신만의 삶과 안전을 버려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실비의 거절의사를 확인한 마스는 그럼 실비가 가진 용을 이용해 캠프로 몰래 물건들을 보내는 일이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실비는 만약 자신에게 레니를 돌려보내준다면 기꺼이 그들을 돕겠다고 말했고 그러자 마스 곁에 있던 힐라가 실비가 나라의 운명과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쏘아 붙였다. 결국 실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져온 물건을 살펴 보기에 그들의 차로 다가갔다. 그때 킨이라는 소년이 갑자기 실비를 공격했고 강제로 그녀를 마스의 차 안에 태워버렸다. 겨울은 납치당한 실비에게 일단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라고 속삭였고 실비는 차 안에 기대 잠이 들었다. 겨울은 대체 왜 실비를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 실비는 이 섬을 구하겠다는 반란군들도 매저러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녀의 목표는 오직 친구 레니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실비는 과연 레니와 이 섬을 구할 수 있을까? 역사와 트라우마, 우정과 용기에 관한 흥미진진한 모험담이다.

<저자 소개>

새넌 디테모어 (Shannon Dittmore)는 작가이자 연설가이며 블로그 'Go Teen Writers'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